8월 1일(월) / 대상17-19

▶**내용요약**: 역대상 1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자 이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 18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하여 블레셋과 모압을 치고 에돔까지 정복한다. 19장은 암몬의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내지만 오히려 신하들이 모욕을 당하자 암몬과 아람을 공격한다.

▶**질문**: 암몬 자손의 왕이며 나하스의 아들로 다윗이 조문사절로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 수치를 준 사람은?(19장)

▶**생각하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심으로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이전에는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쳐서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18:6)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8월 2일(화) / 대상20-23

▶**내용요약**: 20장은 19장에 기록된 전투에서 도망한 암몬 자손을 다시 공격해서 정복하게 된다. 이어 3차례에 걸쳐 블레셋을 친다.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염병의 재앙을 당한다.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3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자손을 계수하고 그들이 감당할 임무를 부여한다.

▶**질문**: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그치도록 제단을 쌓은 곳은 원래 누가 소유한 타작마당이었는가?(22장)

▶**생각하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건축하지 못하게 되자 그것으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아들인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 건축을 위해 필요한 엄청난 재물과 재료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솔로몬은 후에 왕이 되어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우리도 미래의 열매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땀을 흘려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보자.

8월 3일(수) / 대상24-26

▶**내용요약**: 2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조직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25장은 다윗의 명령으로 찬송과 악기 연주를 맡은 사람들이 기록된다. 이들도 제사장들처럼 제비를 뽑아 봉사 순서를 정하게 된다. 26장은 레위인 가운데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과 성전 곳간과 재물을 지킬 자들이 나온다. 이외에도 성전 밖에서 봉사할 사무관과 재판관이 임명된다.

▶**질문:**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25장)

▶**생각하기**: 본문은 다윗 시대에 이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같은 레위인이어도 제사를 맡은 제사장뿐 아니라 찬송하는 이들,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 성전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들,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무관들까지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

8월 4일(목) / 대상27-29

▶**내용요약**: 27장에서는 12개 군단으로 편성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과 이어 각 지파를 관할하는 행정관이 소개되며 왕실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나온다. 28장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것을 권면한다. 29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한다. 이처럼 자신의 소임을 다한 다윗의 죽음이 마지막에 기록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네 아들 ( )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28장)

▶**생각하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28:9)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자!!!

8월 5일(금) / 대하1-3

▶**내용요약**: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면서 큰 축복을 내리신다. 2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로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일군들을 모집한다. 3장은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시작되는데 성전의 전체 구조와 규모가 기록된다.

▶**질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불렀다. 왼쪽 기둥은 무엇이라고 불렀는가?(3장)

▶**생각하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3:1).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곳이고,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로 재앙을 당할 때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다.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마음의 골방, 기도 처소는 필요하다. 우리만의 기도 처소는 어디인가?

8월 6일(토) / 대하4-6

▶**내용요약**: 4장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구와 물건들의 제작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공사가 완성되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이 기록된다. 5장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 가져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6장은 성전 봉헌식에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것을 간구한다.

▶**질문**: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4장)

▶**생각하기**: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6:1)라고 한다. 성전 건축 이전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다윗의 소원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 결코 하나님은 먼저 성전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배려를 기억하자!

8월 7일(일) / 대하7-9

▶**내용요약**: 7장은 성전의 낙성식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2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태우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다른 하나는 밤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이 기록된다. 여러 성들을 건축하고 건축을 위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제사 규례를 정비한다. 이어 해상으로 진출하여 무역을 통해 국가적인 부를 축적한다. 9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쌓은 부귀와 영광을 확인하고 찬사를 보낸다. 솔로몬이 가진 재산과 지혜가 당시 어떤 왕들보다 많고 뛰어났다.

▶**질문**: 솔로몬이 다윗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이 살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8장)

▶**생각하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왕도 가질 수 없었던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사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이 때 하나님은 엄히 경계하신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그의 모든 성취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키고 회복하는 성서인이 되자!